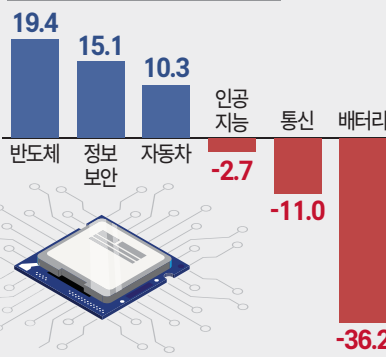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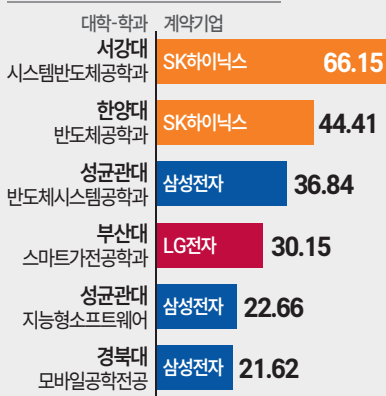
“삼전닉스 갈래요” 대기업 계약학과 수시 9000명 몰렸다

대기업 계약학과 수시 지원

분야별 지원자증감률 단위: %



학교·학과별 경쟁률 단위: 대1



자료/종로학원

대기업 계약학과 지원 ‘역대 최대’ 취업난에 진로보장 학과 선호도↑ 서강대 반도체학과 논술 297대1 반도체 증가… 배터리·통신 감소 산업 동향 따라 학과별 경쟁률 영향

취업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자동차·LG전자 등 대기업 계약학과에 수험생이 몰리며 올해 수시모집 지원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반도체와 정보보안, 자동차 관련 계약학과 지원자는 늘어난 반면 배터리와 통신 분야는 감소해 산업 전망에 따라 선호도가 엇갈렸다.

15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7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자동차 등 7개 대기업과 연계된 13개 계약학과에 총 8994명이 지원했다. 전년 7607명보다 1387명(18.2%) 늘어난 것으로 역대 가장 많은 지원자 수다.

분야별로는 반도체 계약학과 지원자가 전년보다 19.4% 증가했다. 정보보안은

15.1%, 자동차는 10.3% 늘었다. 반면 배터리는 36.2% 급감했고 통신(-11.0%), 인공지능(AI)은 -2.7%, 디스플레이(-1.1%) 분야도 지원자가 줄었다.

기업별 계약학과 가운데 삼성전자와 연계된 성균관대 반도체시스템공학과는 36.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원자는 전년보다 309명(18%) 늘었다. SK하이닉스와 연계된 서강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는 66.15대 1로, 지원자가 전년보다 354명(36.5%) 증가했다.

현대자동차와 연계된 고려대 스마트모빌리티학부 지원자는 전년보다 40명(10.3%) 늘어 경쟁률 14.33대 1을 기록했다. LG유플러스와 연계된 숭실대 정보보호학과도 13.33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지원자가 21명(15.1%) 증가했다.

올해 신설된 LG전자와 부산대의 스마트가전공학과에도 지원자가 대거 몰렸다. 20명 모집에 603명이 지원해 30.1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반면 삼성SDI와 연계된 성균관대 배터리학과는 10.30대 1로 지원자가 전년보다 117명(36.2%) 감소

했다. LG디스플레이와 연계된 연세대 디스플레이융합공학과는 12.09대 1로 지원자가 3명(1.1%) 줄었다.

경북대 모바일공학전공은 지원자가 전년보다 76명 감소했지만 이를 단순히 선호도 하락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논술전형 모집인원이 지난해 15명에서 올해 6명으로 줄면서 논술 지원자도 290명에서 229명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전체 수시 모집인원 역시 20명에서 13명으로 감소해 경쟁률은 오히려 17.85대 1에서 21.62대 1로 상승했다.

전형별로 보면 논술전형의 높은 경쟁률이 두드러졌다. 서강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SK하이닉스) 논술전형이 297.67대 1로 가장 높았다. 한양대 반도체공학과(SK하이닉스) 논술전형도 211.00대 1에 달했다.

성균관대 반도체시스템공학과(삼성전자) 논술 수리형은 124.10대 1, 성균관대 지능형소프트웨어학과(삼성전자) 논술 수리형은 75.80대 1을 기록했다. 부산대 스마트가전공학과(LG전자) 논술 일

반전형도 50.0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종로학원은 취업난이 심화하면서 졸업 후 취업과 연계되는 대기업 계약학과가 자연계 수험생들의 주요 선호 학과군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존 반도체 뿐 아니라 스마트가전과 자동차, 정보보안 등으로 선호 분야가 확대되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취업과 직접 연계되는 대기업 계약학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반도체뿐 아니라 스마트가전, 자동차, 정보보안 관련 학과의 선호도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 계약학과가 자연계 수험생들에게 하나의 뚜렷한 선호 학과군으로 자리 잡아가는 추세”라며 “앞으로도 해당 기업과 산업의 동향에 따라 계약학과별 선호도와 합격선이 매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metro

서울교육청, 위축됐던 초등 체험학습 활성화

현장체험학습 79%→26%로 급감 18억 투입… 보조인력·버스 등 지원 학교 부담 낮추고, 학생에 체험기회

서울시교육청이 현장체험학습 활성화를 위해 18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한다. 체험학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교사들의 책임 부담을 줄이고, 보조인력 배치와 체험버스 지원 등을 확대해 학교의 업무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1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초등학교의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실시율은 2024년 79%에서 지난해 51%, 올해 26%로 2년 연속 크게 떨어졌다. 전체 학교의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실시율도 같은 기간 74%에서 58%, 31%로 하락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7월 ‘2026 서울형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기존 본예산 10억7000만원과 별도로 18억원의 추경을 확보했다. 안전한 교육활동 환경을 조성하고 교사의 책임과 행정업무 부담을 줄여 위축된 현장체험학습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18억원의 추경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인 6억4000만원은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지원에 투입된다. 체험버스 무상지원에 4억8000만원, 학습소품 및 특색캠프에 3억3000만원, 사전답사 교통비에 1억7000만원, 체험비 지원에 1억4000만원 등이 투입된다.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해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체계도 강화한다.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 안전사고에 대해 교사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학교안전법

개정을 추진하고, 긴급지원팀 구성과 법률 대응 등을 지원하는 ‘교육청 소송 책임제’도 검토한다. 가정의 공동책임 등의 절차를 마련하고 특이민원 대응도 지원할 예정이다.

학교의 현장체험학습 업무 부담을 낮추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교육지원청이 보조인력의 인력풀 관리부터 계약·매칭·인건비 지급까지 맡아 학교에 체험학습 보조인력을 배치한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학교 현장의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위해 예산 확충과 인력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교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면서 학생들은 안전한 환경에서 다양한 체험을 통해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밀착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고양시, 전통시장 3곳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오늘부터 5일간 ‘환급행사’ 구매금액별 최대 4만원 환급

고양시가 추석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낮추고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고양시는 오늘부터 20일까지 5일간 원당시장과 일산시장, 능곡시장에서 ‘농축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추석 명절 성수기를 맞아 국내산 농축수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동시에 소비자들의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기간 참여 점포에서 국내산 농축산물이나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으로 일정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구매 금액이 3만4000원 이상이면 1만원, 6만7000원 이상이면 2만원이 환급된다. 1인당 환급 한도는 농축산물과 수산물 각각 최대 2만원으로, 두 품목을 모두 구매할 경우 최대 4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환급을 원하는 소비자는 행사 기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참여 점포에서 받은 영수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부스를 방문하면 된다. 본인 확인을 거친 뒤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으며, 준비된 행사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추석을 준비하는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전통시장에서 우수한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하고 온누리상품권 환급 혜택도 함께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역삼·자양 성장거점으로… ‘다핵도시’ 재편

서울시, 용적률 최대 1300% 적용 성내·창동·중곡·동산 ‘생활거점’으로

서울시가 중심지와 환승역, 간선도로를 연결해 서울 전역을 일자리·주거·문화·생활 기능이 결합된 ‘다핵도시’로 재편한다. 강남구 역삼동과 광진구 자양동은 용적률을 최대 1300%까지 높여 대규모 성장거점으로 개발하고, 강동구 성내동과 도봉구 창동 등 비역세권 간선도로변 4곳은 일자리와 생활편의시설을 갖춘 생활거점으로 조성한다.

서울시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성장거

점형 복합개발사업과 성장잠재력 활성화 사업 첫 시범사업지 6곳을 발표했다. 지난 3월 발표한 ‘서울 역세권 직·주·락 활성화 전략’을 중심지와 환승역, 비역세권 간선도로까지 확대한 후속 조치다.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 대상지는 강남구 역삼동 680-1과 광진구 자양동 17-1 일원 등 2곳이다. 도심·광역중심과 환승역 일대에 문화·산업·업무·주거 기능을 결합한 대규모 복합거점을 만드는 사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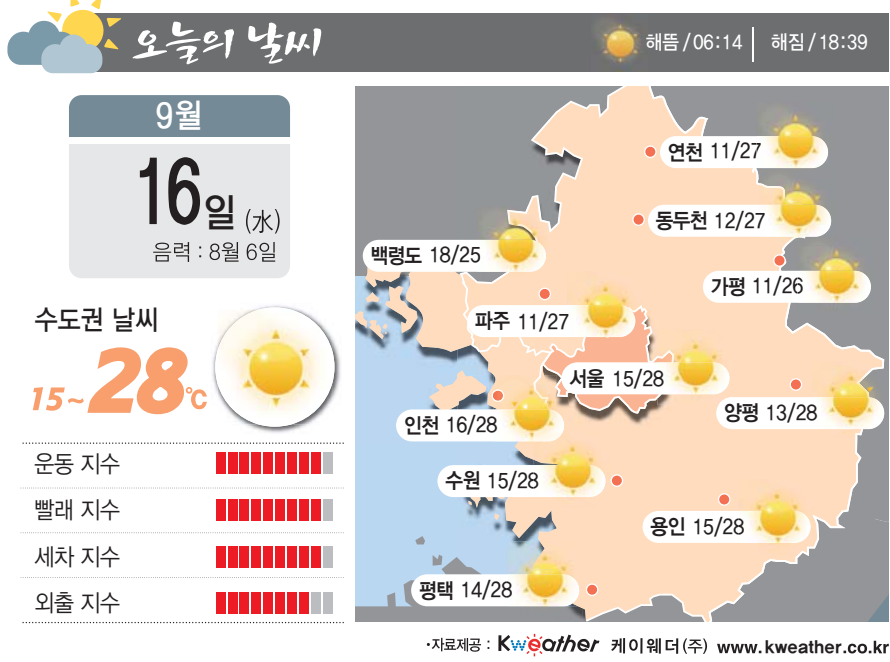
역삼동 대상지는 5475.1㎡ 규모로 선정릉역 환승역세권이자 폭 48m 인주로에 접해 있다. 시는 업무시설을 중심으로 상

업·문화·여가 기능을 결합해 테헤란로에 집중된 강남도심의 업무·문화 기능을 인주로와 선정릉역 일대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자양동 대상지는 5132.6㎡ 규모로 건대입구역 환승역세권이자 아차산로에 접해 있다. 세종대와 어린이대공원에 인접하고 성수지역중심에 위치한 만큼 성수·건대의 첨단산업과 청년 인재, 문화·상업 기능을 연결하는 동북권 성장거점으로 육성한다.

역과 역사이 비역세권 간선도로변에는 ‘성장잠재력 활성화사업’을 추진한다. 첫 대상지는 강동구 성내동 448-1, 도봉구 창동 715-1, 광진구 중곡동 587-2, 금천구 독산동 1066-2 등 4곳이다.

/이현진 기자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10분마다 로봇 1대 생산”…중서 연 1만대 규모 공장 가동
▲유럽 12개국, ‘미·중·러 견제’ 북극 주둔 병력 확대 촉구
/사진 뉴시스

▲“내 코인도 팔 수 있다”…트럼프, 클래리티법 통과 위해 ‘양보’
▲유엔 안보리, 총회 기간 AI 위협 논의…“실존적 위협”

▲이란 공격에 美 외교시설 2490억 피해…첫 집계, 이라크에 집중
▲EU, 15세 미만 SNS 이용 제한 추진…연령별 차등·안전설계 의무